

화면에 비치는 그 모습은
-온라인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보며-

도쿄조선중고급학교 교원
강명세

아침저녁 판형컴퓨터 지켜보며
놀라운 집중력 발휘하는 아이들
시간가는줄 모르고 보고 또 보는
그 화면너머엔 YouTuber 선생님

집안에 넘치는 애들의 웃음소리에도
자꾸만 신경질이 나서
아이들 쏘아보던 내 입에서 튀어나오던
-언제까지 그러니? 어지간히 해!

아들이 판형컴퓨터 가진 그 순간은
아들과 나의 치열한 투쟁의 시작중소리
그러던 우리의 일상을
보기 드물어진 4월의 요즘

아들이 시간가는줄도 모르고
보고 또 보는 화면너머엔
치마저고리차림의
우리 학교 선생님 제시거니
선생님 설명 귀담아들으며
열심히 따라읽는 초급부 아들과
수학에서 만점 맞았다며
혼자 기뻐하는 중급부 큰아들

우리 집에선 보기 드문
이런 광경 너무도 좋아, 사랑스러워
이 아침도 또 보고파
아들 향해 말해보네, 다정하게
《YouTube 봤니? 어서 켜야지.》

오늘도 판형컴퓨터 지켜보는 아이들에게
어머니들 속으로 한결같이 말할거야
-(이것이 선생님들의 진정한 사랑,
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학교의 힘이라고)